

숨가쁘게 사는 사람들 삶 돌아보는 계기됐으면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낸 황명찬 건국대 명예교수

“30년동안 공부해온 부처님 법을 이제야 조금 알게되니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30대 후반부터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즐겁게 사는 길은 ‘마음 다스리는데 있다’고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왔다는 황명찬 건국대 행정학과 명예교수(70·前 건국대 부총장·사진)가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를 펴냈다.

황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바를 정리하게 돼 기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숨가쁘게 살아가는 생활인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많은 선지식으로부터 배우고 눈뜨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처음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한 의도가 지식들과 제자들에게 주려고 한 작업인 만큼 불교를 수필식으로 쉽게 설명하

고자 노력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그 분주한 마음을 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장 전깃불의 화두와 2장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에는 ‘한마음’ ‘적멸보궁’ ‘마음의 참성품’ ‘물의 일생’ ‘전깃불의 화두’ 등의 주제를 담담한 필치로 조용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견집을 수 없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려 ‘천천히’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3장 네가지 진리와 사물의 참모습과 4장

빠르고 손쉬운 길은 그동안 저자가 해온 손쉬운 수행법은 물론이고, <법화경> 및 ‘중관’과 ‘유식사상’ 등 불교의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다. 또 종교에 상관없이 마음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도 좋은 길동무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티베트가 선교를 겪고, 중국 선승들도 경전을 깨고 있는데 한국만 교를 더부사하는 풍조가 안타깝다”는 황 교수는 “많은 분들이 이책을 발판으로 삼아 자기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자인 황명찬 교수는 1936년 강원도 간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태평양지역 지역학회 회장을 지냈다.

김원우 기자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황명찬 지음
지혜의나무 | 9800원



부처님 생애를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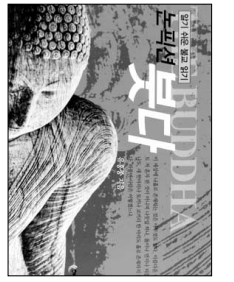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를 한눈에 읽고 싶다면 <논픽션 붓다>를 권한다.

이 책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무엇이며, 붓다의 깨우침이 무엇인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부처님께서 득도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설법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돋보인다.

우리 세계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 세계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바로 거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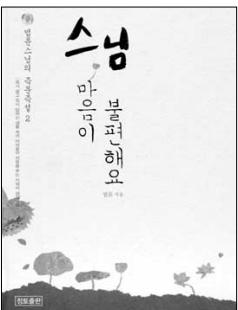
저자 유희중씨는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문예지 <월간문학> 시 부문 신인상과 <현대문학> 소설 추천을 거쳐 문단에 데뷔, 장편소설 <불의 회상>으로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받았고, 중편소설 <서울에서의 외로운 몽상>으로 소설문학 작품상을 수상했다.



논픽션 붓다
(초보자의 불교 읽기)
유희중 지음
해누리기획 | 9000원

스님, 이런편 어떻게 해야 하죠?

일상 속 고민에 대한 법륜 스님의 해법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 9000원

주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법륜 스님: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떠나세요. 상대는 내가 필요 없다는데 내가 상대를 필요로 하니깐 못떠나는 것이지요. 다 가지려고 하면 감정만 상하지요. 남편의 외도에 대해 억울하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야 해요. 마음을 비운다느니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뭐 대단하다고 마음을 비우기는 비워요. 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괴로운 일을 겪는다. 부부사이든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길게는 인생의 대부분이, 짧게는 잠시 잠깐, 순간에도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한눈 파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주부, 머느리가 못마땅한 시어머니, 결혼한 자녀가 잘 살지 못해 불안한 어머니, 상대가 미워죽겠는 사람, 혼자 주눅 들어 의기소침한 사람...

우리가 묻고 싶었던 일상의 질문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부사)이 해답을 내놨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2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는 ‘잘 사는’ 것에 대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일상의 불편한 일을 겪는 우리들이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는 답변이 생생하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질문하고 싶었을 구체적인 현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법륜 스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하게 안내한다. 말하자면 ‘마음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법륜 스님은 명쾌하게 일상의 고통과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법륜 스님은 ‘잘 사는’ 것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한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스님은 ‘마음’이라고 해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현실’을 먼저 보고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권유한다.

법륜 스님은 1988년 설립한 정토회에서 정토 행사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라몬 마사이사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금강경 이야기> <반야심경 이야기> <일과 수행, 그 아름다운 조화>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 <즉문즉설 1-지은 인연을 알면 괴로움 일 없다> <붓다, 나를 흔들다>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노래하는 도신 스님의 ‘사부곡’

입적한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의 애뜻한 인연

“우리 스님은 보살이셨습니다. 스님은 참으로 혜안을 가지신 자비보살이셨습니다. 밧줄에 묶인채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재라고 살아 가는 우리에게...”

출가승 최초로 국악가요 음반을 냈으며, 전국의 사찰과 양로원 교도소등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보시하는 도신 스님(서산 서광사 주지·사진)이 <나의 스승 법장 스님>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해 원적에 든 은사인 법장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그리는 ‘사부곡’이다. 여덟살의 어린나이에 동자로 수덕사에 입산해 17세에 법장 스님에게 수계를 받고 출가한 도신 스님은 “은사스님은 나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한다.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상좌에게 종아리를 때리며 눈가에 이슬이 맺혔던 20대 중반의 은사 스님.

도신 스님은 “초등학교시절 ‘까까중’이라 놀리던 아이들과 싸운 상좌를 학교에서 수덕사까지 업어주었던 일과 몰래 숨어 노래를 부르던 나의 기타를 세 번이나 박살내던 은사스님이 너무 그림자”며 “꽃집대의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곁에 은사스님이 있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스님의 책에는 입산출가에서 수계, 노래하는 스님이 될 때까지의 법장 스님과 얽힌 추억을 회상한다. 마지막으로 수덕사를 중창한 은사스님의 업적과 총무원장 재직중의 업적, 공덕, 다시들은 법륜, 스님께 보내는 편지 등을 실었다.

김원우 기자



나의 스승 법장 스님
도신 스님 지음
해민기획
1만2000원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법구경

청소년과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붓다의 드넓은 자비의 세계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어줄 책이 나왔다.

<진리의 꽃다발 법구경>은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법구경> 423편의 경전 중에서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31편을 골라 번역하고, 그에 관한 배경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하여 덧붙였다. 가능한한 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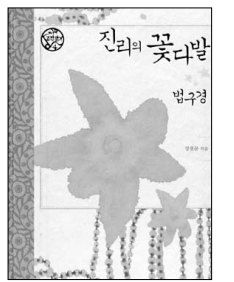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며, 현대인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배경이야기를 가진 것들을 골라 실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지혜’ ‘생활’ ‘평화’라는 세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문 사이에는 국내 저명화가들의 그림을 실었고, 불교용 어휘가 코너도 쉽게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처님 열반 당시를 서술한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추가했다.

저자 장철문씨는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94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시 <마른 풀잎의 노래>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바람의 서쪽>과 동화 <노루 삼촌>을 펴냈다. 현재 어린이책 기획 및 집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진리의 꽃다발
장철문 지음
아이세움 | 98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무엇이 보이노(산중방담1) 강병호, 8000원, 운누리
 - 보리도깨약문 풍기백, 3만5000원, 시론
 -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전재성, 3만원, 한국배알리성전협회
 - 사진으로보는 중국차 박종관, 2만5000원, 형설출판사
 - 옥추경 연구 구중희, 1만9000원, 동문선
- 도서주문 (02)2004-8219

당신을 살리는 내면의 울림!

바이로차나

출판사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던 문제의 원고, 그 어떤 스님도 쉽게 서문 써 주기를 꺼려하며 손사래를 쳤던 그 화제의 원고가 百思千議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생세계의 혁명가라 불리어지는 공파스님의 거침없는 필치와 파격적인 毗正은 어정쩡하게 세간과 출세간의 名相만을 즐기는 당신을 전율에 떨게 하고 소름을 돋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심신이 알고 의지가 박약해 불교의 표면만을 곁들고 있는 당신을 강직하면서 순박한 불자로 확실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언과 극락세계 1·2·3 그리고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내놓을 때 마다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파스님의 새로운 역작 바이로차나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펴시고자 하셨던 원초적인 말씀과 현재의 이 불교가 얼마나 그것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아울러 그 나아갈 바의 길을 상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파 스님 역해 | 350쪽 | 값 10,000원



말안소리 말안나라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교전문 출판사
(051)244-0263